

LH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추진



LH광주전남본부는 23일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성군, 장성세마을금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장성군과 LH가 '민들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협력하고 LH와 장성세마을금고는 주거복지포인트 재원을 매칭해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시범사업"은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주인에게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공동체 활성화와 임대주택 내 고독사 예방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대학교는 22일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와 인력양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철 총장, 유혜숙 보건과학대학장, 이승욱 병원장, 김병환 종합검진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맺은 협약을 계기로 ▲상호 인적교류를 통한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광주기독병원과 인재양성·연구 협력



▲연구교육 기자재 공동활용 및 시설이용 협력 ▲보건의료 재학생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산학 공동지도 ▲실무교육 과정 및 교재개발 공동 참여 ▲취업 및 상호 발전에 기여되는 사항 ▲대학교직원 및 재학생(해외유학생 포함) 진료 시 감면혜택 제공 ▲병원 임직원 대학원 학비감면 혜택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학교 윤경철(사진) 교수(의대 안과학교실)가 한국건성안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

현재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2008년 국내 최초로 건성안 연구 동물실험실을 개설했다. 윤 교수는 한국콘택트렌즈학회 회장과 대한안과학회 학술위원장 및 수련위원장,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위원장, 아시아각막학회 학술위원장, 미국 시교학안과학회 학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 신임 회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국내 건성안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성안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 눈 건강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구건조증을 포함한 눈물질환을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의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건성안학회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건성안학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윤경철 전남대 교수

한국건성안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 윤경철(사진) 교수(의대 안과학교실)가 한국건성안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

현재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2008년 국내 최초로 건성안 연구 동물실험실을 개설했다. 윤 교수는 한국콘택트렌즈학회 회장과 대한안과학회 학술위원장 및 수련위원장,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위원장, 아시아각막학회 학술위원장, 미국 시교학안과학회 학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 신임 회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국내 건성안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성안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 눈 건강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구건조증을 포함한 눈물질환을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의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건성안학회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건성안학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대, 한국예술행정협회와 전문인력 양성 협약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음악공연기획과는 지난 18일 천안시 리카미술관에서 한국예술행정협회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MOU를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국립목포대 음악공연기획과 학과장인 신지수교수, 유원희 한국예술행정협회 회장, 이수연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 교육과정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활동, 문화예술 현장실습을 위한 인력과 자원 교류, 비교과 특성과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협력, 공연기획과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이수시 예술행정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연기획과 3급 자격부여 등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카리타스어린이집 '좋은이웃 어린이집' 동참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본부장 정용진)는 22일 광주시 국공립남구구립카리타스어린이집(원장 최현미)에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

어린이집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아동을 1대1 결연하며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는 약속의 시작에 참여했다. '약속의 시작'은 유아교육기관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시대 공존과 공감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현미 자연동산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들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장우권 전남대 교수 저서 '정보문화사'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우권(사진) 교수의 저서 '정보문화사'가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정보문화에 나타난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역사에 대해 다룬 장우권 교수의 저서 '정보문화사' (도서출판 창랑, 2024)를 2024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장 교수는 '정보문화는 사회마다 다양하거나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문화 특성을 오랜 세월이 걸쳐 축적돼 온 생활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정보문화 전달의 매개체는 도서관'이라며 '도서관은 인류가 변명을 지향하는 지식정보자원의 요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장 교수의 또 다른 저서 '라키비움에 숨어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지식정보자원(2022)'은 '2022년 세종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0 SBS 10 뉴스
10	00 팔도방송 스페셜 2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국회 인사청문회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30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2	00 KBS 뉴스 12	20 신상출시 펀스토랑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장에 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 노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05 차침 탑스피너 BX 25 한글용사 아이야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팔도방송 스페셜 3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15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 3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우리동네 털몽치들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토크멘터리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10 어쩌다 마주친 퀴즈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2장 1집(재)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우리동네 털몽치들 -세계관의 확장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	10 스모킹 건	30 라디오스타	50 특집 추모다큐 양곡로 학전, 그리고 뒷길 김민기
11				
12	00 KBS 뉴스라인W 20 KBS 중계식	10 2024 파리 올림픽 특집 40 보령머드축제 개막기념 <K-POP SUPER LIVE>	2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다이너스티 공룡수호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객주빈의 세계 기사식당 2(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PD로그(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귀하신 몸(재)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일단 태 베틀남 -하루쯤은 영화처럼 하노이·하롱베이>
1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목어박, 거기 어머? 3부 '할'하게 쉬다 갈래요?>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클래스 e	21:55 왔다! 내 손주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22:45 EBS 스페이스 공감
08:20 안전초코 핫초코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3:35 툼
08:50 뽕뽕뽕 부부만	16:30 페파 피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09:05 골짜기 처용 수백	16:40 마사와 곰	
09:20 탐골스타 개칭이(재)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안전초코 핫초코(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음6월 19일 己丑)

<p>36년생 판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48년생 조건을 낱낱이 고려한다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60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72년생 현재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요체는 따로 있느냐. 84년생 기회가 가까이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보아라. 96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2, 66</p>	<p>42년생 소홀히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54년생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6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지장이 없다. 78년생 만남의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리라. 90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포기함이 낫겠다. 02년생 도움을 받아야만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생길리라. 행운의 숫자 : 01, 69</p>
<p>37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49년생 비슷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61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서 집착할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85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더 늘린다면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다. 97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지장이 없다. 행운의 숫자 : 48, 94</p>	<p>43년생 시시한 것을 가까이하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55년생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67년생 가능성은 능후하니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79년생 지난날에 쌓았던 공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리라. 91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03년생 자란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51</p>
<p>38년생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50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매우 크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 두자. 62년생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74년생 쓸 곳은 많은데 앞에서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86년생 재판사가 지체되다가 중구적으로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98년생 성과를 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1, 90</p>	<p>44년생 이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56년생 상호 간에 소통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절실하다. 68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80년생 전후 사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닥을 잡을 수 있다. 92년생 행동에 제약받게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04년생 서로 관련된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0, 60</p>
<p>39년생 정오의 실재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51년생 기적 배려해 주고도 흠날릴 수가 있다. 63년생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 매사에 예의 주시하며 정갈히 대가하라. 75년생 고정 관념을 깨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87년생 목표에 성큼성큼 접근하고 있느냐. 99년생 정반대의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17, 88</p>	<p>45년생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하다. 57년생 의도와 용기는 훌륭하나 상대방의 반응이 신동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69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야겠다. 81년생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93년생 실상을 차려야 할 때이다. 05년생 나서야 할 때 망설이면 실패를 잃게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5, 57</p>
<p>40년생 기쁨에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이다. 52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4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을 명심하라. 76년생 윤색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88년생 현재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00년생 현상만 유지하자. 행운의 숫자 : 03, 87</p>	<p>46년생 호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낙담하지는 마라. 58년생 제의한다면 상대는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크다. 70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82년생 역풍이지만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94년생 징후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06년생 지극히 조그마한 차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5, 52</p>
<p>41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53년생 우연히 생긴 것이 적절히 쓰이게 되리라. 65년생 급변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하자. 77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 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가 이르렀다. 89년생 중요한 일이 겹쳐서 분주해지겠다. 01년생 지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행운의 숫자 : 16, 59</p>	<p>47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59년생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니 우회로를 모색하자. 71년생 준비하다가 하루해물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냐. 83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95년생 더불어 살아 가자고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00, 75</p>